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나눔과 드림에 대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교회는 선교 헌금을 통해 바울의 힘든 사역에 동참해 주었습니다.(14절) 빌립보교회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여러 번 선교 헌금을 보내 주었습니다.(15, 16절) -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을 때부터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도행전 17장)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을 보면 빌립보교회는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투자이기 때문입니다.(17절)

17절을 보면 바울이 나눔과 드림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열매의 번성을 구한다고 합니다. ‘열매’로 번역된 헬라어 ‘카르폰’이라는 말은 상업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투자로 얻은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profit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 가장 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투자금으로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18절)

1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교회의 드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눔과 드림은 가장 좋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마태복음 10장 40~42절-주의 종들을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46절-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19절)

바울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잠언 11:25, 욥기 41장 11절, 누가복음 6장 38절)

드림과 채움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4/12(월)	4/13(화)	4/14(수)	4/15(목)	4/16(금)	4/17(토)	4/18(주일)
삼상 7-9장	삼상 10-12장	삼상 13-14장	삼상 15-17장	삼상 18-20장	삼상 21-23장	삼상 24-25장

QT

이번 주 QT 말씀

4/12(월)	4/13(화)	4/14(수)	4/15(목)	4/16(금)	4/17(토)	4/18(주일)
출 4:10-17	출 4:18-23	출 4:24-31	출 5:1-14	출 5:15-6:1	출 6:2-13	출 6:14-30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 혹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2. 나의 삶 속에서 나눔과 드림을 어떻게 좀 더 실천할 수 있을까요?
3. 드림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